

# 여성 경력단절 방지한다

### 순창군-지역 기업, 여성 친화 일촌기업 협약... 일자리 창출·고용유리 '한뜻'

순창군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관내 기업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군은 1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여성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기업들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윤애) 주관으로 여성친화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순창군이 19일 관내 기업들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기업은 사조산업(주), 순창장본가전통식품, (주)진미순창식품, 의료법인희망의료재단, (주)앤앤비, 농업회사법인(주)순창성가정식품, (유)순창돌봄센터, GP홈케어 등 8개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참여기업들은 향후 센터를 통해 배출되는 여성인력을 우선 연계해 인력난 해소에 나서는 한편 새일여성인턴, 기업환경개선, 찾아가는 기업특강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군은 이날 협약식에 이어, 지역의 16개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정책 일자리지원사업 설명회와 여성일자리 증대를 위한 일자리 협력회의도 함께 진행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군 한상철 주민복지실장은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 일터를 만들 계획"이라며 "관내 기업들을 여성친화 일촌기업에 참여토록 적극 장려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광한춘몽-사랑에 빠지다' ... 남원시, 춘향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춘향제추진위원회는 제89회 춘향제 추진상황보고회(1차)를 19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갖고 올해 춘향제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각 행사담당과 제위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행사종목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남원시가 19일 춘향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춘향제의 모습.

보고회에서는 행사 관계자들이 축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행사추진 중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중 보고하였다.

올해 춘향제는 '광한춘몽(廣寒春夢)-사랑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광한루와 요천 일원에서 펼쳐진다.

제89회 춘향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3월중 남원시 상품권의 발행에 맞춰 춘향제 기간 중 행사관계자에게 지급되던 식권과 행사참여자 실비보 상금을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할 계획이다. 방자출판을 통해 각종 출입을 내는 열정을 느낄 수 있다.

달빛출판에서는 '7890 고고장', 'EDM 디파티'를 테마로 흥겨운 무대가 펼쳐진다. 차 없는 거리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연일 펼쳐져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 것이다.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주차장 운영, 구간별 교

통제, 우회도로 안내 등 교통대책도 준비되고 있다. 자가용 차량 운행 안하기, 노선별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기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위한 시민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 남원시, 2020~2022년 공급분 토양개량제 신청

남원시에서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공급예정인 토양개량제 신청·접수를 5월1일까지 받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

량이 낮은 농경지나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석회, 규산, 패하석을 농가에 무상 공급한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운봉읍, 주천면,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과 2021년에는 대산면, 사매면, 보절면, 덕곡면, 산동면, 이백면, 향교동, 도룡동 2022년에는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노암동, 왕정동의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

### 임실군의회, 25일부터 읍·면 순회간담회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느끼기 위하여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선다.

오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12개 읍·면을 찾아가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읍·면 순회간담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임실군의회는 찾아가는 읍·면 순회 간담회가 주민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지역구가 다른 의원 간 소통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소 자기 지역구 외의 다른 지역구의 현안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에 없었던 의원들이 읍·면 순회 간담회를 통해 다른 지역구 현안도 상세하게 파악, 의정 활동 시 해당 지역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군정 전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은 "주민의 생생한 현장 민심을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많이 듣고 생각하여 의정발전 및 임실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사소한 것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열린의정, 으뜸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며 "농번기 바쁘시겠지만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매아리

#### 순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7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신용균 의원, 위원으로 예산·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진 3명(정봉주, 강용신, 김진규)으로 구성되어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일정에 돌입한다.

한편 19일 본회의에서 송준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 건강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에 대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선도적 추진과 '케어안심주택' 확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경찰 전통휠체어

#### 교통사고 방지 '귀감'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경찰관들이 4차선 국도를 역주행 하던 전통휠체어를 발견, 신속한 조치로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 금과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송기석, 경위 임규원은, 지난 18일 오전 8시 10분경 출근하기 위해 순창읍내에서 담양방면으로 진행 중,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담양방면으로 역주행하는 전통휠체어를 발견, 방지하던 사상사고 등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직감하고 망설임 없이 중앙분리대가 없는 담양군 금성면 소재 덕성교차로에서 회차하여 우선 1차로 확보 후 다른 차량의 서행을 유도, 약 1km를 진행, 역주행 하던 휠체어를 발견, 신속히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이동시켜 안전을 확보했다.

한편, 불법 교통신호 위반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900여대의 경운기, 사발이, 오토바이, 전통휠체어를 개별적으로 관리, 홍보하고 있다는 송경위와 임경위는, 단 한 건의 교통사고라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가 19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 임실고추앤농산물 가공판매 정기주주총회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대표 정정수)는 19일 임실고추가공센터 세미나실에서 행정을 비롯한 농협 및 읍면 대표주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는 임실군 출자기관으로 지난해 55억원의 매출과 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3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해 경영안정과 단계에 진입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8년 결산 및 2019년 사업계획, 정관개정, 임원보수, 주주변동의 건을 승인했다.

설립 이래 처음으로 주주들에게 5%의 배당금 지급을 확정했다.

임실군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명품 고춧가루 생산을 위하여 함안항습기 설치(2억원) 등 고추가공센터 가공 시설 현대화를 위해 4억원을 투자하

게 되며,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전 사업으로 kg당 3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추공공육묘로 주당 40원, 종자대로 봉당 2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추 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고추 멀칭비닐, 건조기·세척기, 지주대,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는 등 고추재배면적 확대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15억원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임실홍실 고추브랜드의 명품화 전략을 통하여 임실고추가공센터를 원예산업발전의 롤모델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